

# 차 문화교육이 학습부적응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황미영 · 원효헌\*  
(부경대학교)

## The Effects of Tea-culture Education on Learning maladjusted children`s Self-efficacy

Mi-Young HWANG · Hyo-Heon W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help children with poor learning capacity to enhance their sense of self-efficacy by providing them the tea-culture education program. It had been executed for the target participants of 11 in 2012, 19 in 2013 and 24 in 2014 respectively during 3 years the participants who were recruited by 00 District office Dream start. The scores of pretest and posttest for the item of self-efficacy by gender did not show a significant meaning in 2012, while the scores of self-efficacy of female students were identified as higher than those of male students in 2013 and 2014. As the result of applying the tea-culture education program, there was no meaningful difference in the item of social self-efficacy among the sub-components of typical self-efficacy in 2013, but all has been revealed as improved in 2012, 2013, and 2014 including sub-variables such as learning self-efficacy, social self-efficacy and emotional self-efficacy as well as the general self-efficacy. Thus, the results of this investigation show that the tea-culture education program were effective in developing the self-efficacy of learning maladjusted children.

**Key words :** Tea-culture education, Learning maladjusted children, Self-efficacy

### I. 서론

1997년 5월부터 초·중등학생의 기초학력을 제고하기 위해 학습부진학생 현황을 파악하여, 보정교육과 효율적인 지도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정책을 기울여 왔다. 학습부적응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 효율적인 학습지도 방안을 제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학습부적응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학습부적응의 원인은 학교학습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지적능력이나 잠재력은 있으나 학업성취를 도모할 수 있는 개인적 요인(선수학습부족, 부적절한 학습습관과 학습태도), 정서적 요인(주의결핍, 부정적사고, 과잉행동, 정서불안), 환경적 요인(불편한 또래관계, 부모의 부재, 맞지 않는 교수환경), 인지적요인(낮은 지능, 학습기능저하, 기억력저하), 행동적요인(비효율적인 학습전략과 학습활동) 등에 의해 정상적으로 학업성취가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Daesik lee, Maehyang Hwang, 2011). 학습부적응 아동들은 중추신경계

\* Corresponding author : 051-629-5972, wonhyo@pknu.ac.kr

의 이상과 유전적인 요인 등의 기질적인 문제에 의해 나타나는 학습장애아동들과는 다르다.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학교환경, 심리적으로, 인지적으로 등 내외적인 요인에 의해 학습에 좋은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이다(Youngran Kim, 1997; Manseon Yoon, 2010).

Mikyeong Yang (2008)은 학습부적응 아동들은 일반학생들보다 언어적으로 소통이 어렵고 감정 표현이 되지 않으며 심리적 억압으로 인해 자신의 방어를 강하게 한다고 했다. 학습에 열의나 성취동기, 자기효능감이 낮고, 자신의 능력을 부정확하게 지각하며, 실패를 능력부족에 귀인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Borkowski, Thorpe, 1994). 이런 아동들에게 내적동기유발과 정서적인 지지를 해 준다면 학습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Choonkyeong Kim, 1998). 학습부적응 아동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지지를 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은 학령기 아동의 학업성취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어 아동의 발달과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했다(Kihye Han, 2011). Bandura의(1999)의 보고에서도 자기효능감은 행동과 정서에 영향을 미쳐 전반적으로 아동들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다고 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아동들의 정서적 지지에 도움이 되는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인간존중사상을 바탕으로 심신의 건강과 사회적 적응력에 도움을 주는 차 교육은 정서적 지지와 의사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Insook Kim, 2003; Choonyeon Kwon, 2007). 유아를 대상으로 또래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Jinhok Park, 2012), 위기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서적지지, 자기효능감 및 공격성에 대한 연구(Hyangsook Lee, 2011; Insook Kim, 2015) 등의 연구에서 차 문화교육은 정서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학습부적응 아동의 심리치료를 위해 차 문화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일반아동들과 학습부적응 아동들의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안으로 Keller의 ARCS 수업모형을 기반으로 자기효능감에 효과적인 차 문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ARCS 수업모형은 학생의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흥미 있는 수업전개와 학습동기적인 측면을 설계하는 문제해결전략이다(Keller, Sangho Song, 1999). 이 수업전략 기반으로 차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자신의 미래설계에 긍정적인 기대감을 인식하는데 필요한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 자기효능감이 차 문화 교육 프로그램 진행 전과 진행 후 차이가 나타나는가?

둘째, 3년간 진행한 차 문화 교육프로그램이 학습부적응 아동들의 자기효능감 향상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차 문화교육

차 문화와 관련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다도와 다례의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다례(茶禮) 혹은 다도(茶道), 일본에서는 다도(茶道) 중국에서는 다예(茶藝) 또는 다도(茶道)로 표현한다. 이러한 개념들은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다도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차 문화는 무엇인가? 차 문화는 차와 문화의 복합적 개념으로 차를 문화적으로 해석한다는 뜻이다. 문화는 인류가 시대를 통해 만들어 놓은 정신적 물질적인 일체의 성과를 나타내며 의식주를 비롯하여 기술, 학문, 예술, 도덕, 종교 등의 생활양식과 내용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차 문화는 차를 마시는 행위와 관련된

예법과 차의 학문적 성과, 자기 수련 방법으로서의 다도, 차 및 다구 차회를 통한 인격교류로서의 인간이해 등 다양한 관점이 포함된 포괄적인 개념이다. 차 문화의 이런 특성 때문에 대학이나 사회교육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다례 다도교육 활동뿐 아니라 차를 만드는 활동 마케팅 하는 활동 등도 포함한 포괄적이고 다양한 관점이 포함된다.

차는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주는 활동이이며 전통문화를 구심점으로 하는 차와 예절의 조화로운 만남이며 인성교육의 통로이다. 차를 통하여 올바른 행동습관과 참을성 집중력을 기르고 성취욕구와 자신감을 발달시킬 수 있으며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고 했다. 차는 기호음료도 사용되기도 하고 사람과의 만남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차이다. 차의 잎이 가지는 유익한 성분이 밝혀지고 전반에 걸쳐 차가 대중화되면서 차 문화의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차 문화교육은 치료의 수단이자 도구로 사용된다. 차는 신체적 건강 회복과 정신적 건강을 좋게 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기분을 느끼게 하여 긍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했다(Youngseon Jeong, 1996).

차 문화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차 문화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행복감 증진 시켜 뇌파를 안정시키기 때문에 현대인에게 유용한 프로그램이라고 보고했다(Hwasun Yi, 2006; Myeongja Choi, 2007). Seongae Lee(1997)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차 문화교육을 실시하여 자긍심을 향상하여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었다고 했다. Somsil Lee(2003)도 다사(차를 다루는 일)을 통하여 인성 영역 중 정서적 안정과 배려심에 효과가 있다고 했고 Youngsook Chung(2004)는 차 문화가 참을성과 집중력 및 자신감을 갖게 하여 공경심을 가지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했다. Hyejeong Jeong(2009)은 차문화치료가 ADHD아동의 부적응 행동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했으며 Jinok Park

(2012)은 차 문화치료가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 변화에 효과가 있다고 했다.

정서적 기능향상에 도움을 주는 차는 첫째, 차를 다려 손님에게 대접하고 그 차를 감사히 마실 때 차를 대접하는 사람은 보람을 느끼고 자긍심이 생기며 긍정적인 사고와 자아존중감이 향상된다. 둘째, 자리에 앉아 여러 친구들과 명상음악을 듣고 다양한 활동을 할 때 집중력과 창의력이 향상된다. 셋째, 차는 대화의 매개로 서로에게 상담자, 조언자, 지지자, 상호공유를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차는 긍정적인 사고, 자아존중감 향상, 인간관계 형성에 차 문화교육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Table 2>에 차 문화교육프로그램의 구체적으로 내용을 제시를 하였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대표하는 차 마시기, 친구들에게 차를 대접하기, 프로그램지에 표현된 다구색칠하기, 오방다포를 통해 자기반성하기, 미래목표세우기, 자신의 나쁜 습관 고치기, 예절 익히기, 명상을 통한 자기조절훈련, 신체건강에 도움이 되는 요가동작, 나를 찾아가는 여행을 통해 자기 이해하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구성하였다.

## 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학자에 따라 용어사용의 차이는 있으나 가장 일반적인 것에서부터 특수한 것까지 여섯 가지 차원으로 구분되어진다(Yoonah Song 2010). 그 차원들은 일반적, 맥락-특수적, 영역-특수적, 과목-특수적, 상황-특수적, 과제-특수적으로 구분되며 서로 위계적인 구조를 형성한다고 했다.

Bandura(1997)는 자기효능감이란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할 때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서, 어떠한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때 증가되지만 수행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감소될 수 있다고 했다. 즉 자기효능감은 인간이 목적인 바를 달성하기위해 인

간의 인지적 과정을 비롯한 정서 및 동기과정 등에 영향을 미쳐 다양한 영역에서의 행동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했다(Haejoo Choi, 2011).

자기효능감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나 과제에 상관없이 그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다(Muris, 2001).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 정서적 자기효능감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시험이나 숙제 등과 같은 학업적인 상황에서의 수행을 해낼 수 있는 자신에 대한 신념을 뜻하고,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친구, 교사, 또는 낯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자신에 대한 유능감을 의미하며, 정서적 자기효능감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의미한다(Haejoo Choi, 2011; Muris, 2001).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선택하는 반면,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기술을 넘어서는 위협적인 상황을 두려워하고 피하려 하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제들만 선택한다(Bandura, 1997). 성공을 하거나 실패를 했을 때 그 이유도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노력이나 이해의 부족과 같이 내부에서 찾아 극복하는 반면,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환경의 어려움이나 자원의 부족과 같이 외부에 원인을 돌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과거의 경험이나 감정에 관련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구체적인 강화요인으로 성취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각성의 3가지를 들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통한 인간관계나 주위환경과의 다양한 경험에 의해 발전되고 변화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긍정적 지지와 격려를 받으면 손상된 자기효능감이 회복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Gardner, 1989).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학습동기, 학습습관, 교우관계, 교사관계, 대인관계를 잘 형성하여 학교생활을 잘 하며(Soonae Jeong, 1998:

Jeongnam Kim, 1999),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 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가져온다고 했다(Ahyoung Kim, 2002; Hae-Eon Seong, 2006).

이상의 연구들에서 자기효능감은 아동의 학교 생활과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준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차 문화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습부적응 아동들의 자기효능감 향상에 적용하였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광역시 ○○의 드림스타트 사업에 참여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3년간 진행한 차 문화 교육프로그램 적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되었다. 대상인원은 2012년 11명, 2013년 19명, 2014년 24명 총 54명으로 년도에 따라 대상아동은 다르며 구체적인 아동 수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The number of children participating in programs by year

Participants by year		2012	2013	2014
Sex	Male students	6	10	13
	Female students	5	9	11
Total		11	19	24

대상자는 ○○구청의 드림스타트사업에 참여하는 아동들이며 학교의 학업성적이 낮거나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동들이다. 학업성적은 ○○구청 인지분야 담당공무원이 부모의 동의를 구하여 학교선생님과 상담 후 학업성취도점수가 거의 모든 과목에서 낮은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부분의 아동들은 왕따, 학교폭력, 가정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아동들이며 초등 고학년들로

구성되어 있다.

## 2. 연구도구

선정된 학습부적응 아동들은 먼저 전문가선생님들이 객관화된 심리검사와 투사검사를 실시하여 심리적 문제와 학습부적응 원인을 밝혀 학생개 개인의 심리검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의 자기효능감 척도는 Muris(2001)의 일반적인 자기효능감(General Self Efficacy)을 Haejoo Choi(2011)가 우리나라 아동을 대상으로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학업적 자기효능감(8문항), 사회적 자기효능감(8문항), 정서적 자기효능감(8문항)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문항은 24문항이다. 본 척도는 4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의 응답문항에 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습부적응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자기효능감 검사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2012년 전체 자기효능감 척도는 .762, 학업적, .756, 사회적 .744, 정서적 .713이고 2013년 전체 자기효능감 척도는 .767, 학업적 .678, 사회적 .848, 정서적 .658, 2014년 전체 자기효능감 척도는 .825, 학업적 .768, 사회적 .837, 정서적 .744이었다.

## 3. 자료분석 및 프로그램내용

8회기 동안 차 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자료처리는 객관화된 심리검사인 일반적 자기효능감 검사, Beck의 불안검사, 투사검사 등을 진행하여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은 한 회기에 약 70분 정도 수업이 진행되었다. 사후결과는 일반적 자기효능감 검사, 투사검사 등을 통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자료는 IBM PASW Statistics 21을 이용하여 통계적 처리를 하였고 유의성은 유의수준( $p$ )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사전-사후 성별에 따른 자기효

능감의 사전 사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고 일변량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결과를 나타냈다. 차 문화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한 후의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을 이용한 t-test로 검증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구성은 연도에 따라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지만 2013년, 2014년에는 Keller(1987)의 학습동기이론의 구성요소에 입각하여 아동에게 도움을 주는 <Table 2>의 수업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차 문화 교육프로그램은 아동의 자기효능감 향상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들로 구성하였으며 수업은 70분씩 1주에 한 번 8회기 동안 실시하였다. 8회기 수업내용은 Keller(1987)의 ARCS전략을 토대로 본 연구자가 개발한 차 문화 교육프로그램 내용을 기초로 진행하였고 연도에 따라 대상자는 다르지만 수업의 내용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진행이 되었다.

본 연구의 차 문화 교육프로그램의 8회기 수업 내용은 <Table 2>와 같다.

## IV. 연구 결과

### 1. 성별에 따른 연도별 자기효능감

성별에 따른 아동의 2012년, 2013년, 2014년 연도별 자기효능감에 대한 사전, 사후 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3>, <Table 4>, <Table 5>에 제시되었다. 성별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집단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사전 검사점수를 공변인인으로한 공변량분석(ANCOVA: Analysis of Covariance)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3>에 나타난 것과 같이 2012년에는 여아들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남아들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자기효능감 하위요인인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 정서적 자기효능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2013년에는 <Table 4>와 같이 자기효능감 전체,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

<Table 2> Contents of the class of the 8th tea culture and education program based on ARCS

	session	objectives of each session	The content of education and educational activities
Analysis evaluation	Pretest	Identifying student status with psychological test papers	Psychological evaluation report on individuals
Attention Concentration	1	Rapport-building	Chatting about the smell, taste and color of teas The definition of tea and its benefits Tea manners
Relevance Confidence	2	Self-reflection and unconsciousness investigation through teas	Chatting about recently happened thankful things, happy things, things for apology and things hard to withstand Drawing and coloring the leaves of green tea before and after brewing tea
Relevance Confidence	3	Tasting spring and summer teas Serving tea to friends	Tea brewing and tea demonstration Learning how to serve tea to friends and family
Confidence Attention Concentration	4	Tasting autumn and winter teas Anger adjustment and confidence improvement through teas	Comparison of color and taste between chrysanthemum tea and green tea Meditation seeing tea and chatting about thoughts in unconsciousness
Confidence Relevance	5	Character education with tea manners	Learning the right way of greeting and linguistic habits activities providing sound mental attitude and a healthy body through right attitude, and being helpful in height growth
Relevance Confidence	6	Learning self-control, improving self-esteem	Journey finding out self imbedded in unconsciousness Chatting about teas to serve to parents and teas I like.
Satisfaction Confidence	7	Completion of art by tea Self-reflection and self-approbation	Seeing spring, summer, autumn and winter tea pictures and coloring my favorite tea plants and then, drawing my dreams and advantages in the tea plants
Satisfaction Confidence	8	Future dream Presentation of my impressions	Giving concrete shape to a dream and improving self-confidence Reading Koi Fish and building self-confidence Evaluating myself and chatting with one another
Evaluation	Post-test	Presentation of my impressions	making a profile of post-test results Reporting in the district office

<Table 3> Th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of pretest and posttest of self-efficacy by sex in 2012

Group	Pretest score				Posttest score				F	P
	Male (n=6)		Female (n=5)		Male (n=6)		Female (n=5)			
	M	SD	M	SD	M	SD	M	SD		
general self-efficacy	48.667	4.082	54.000	3.536	64.333	1.751	65.200	1.643	2.743	.136
Learning self-efficacy	12.500	3.450	14.000	1.581	19.500	.548	19.600	.894	2.770	.135
Social self-efficacy	18.500	1.378	20.200	.836	22.500	1.049	23.600	1.517	.440	.526
Emotional self-efficacy	17.667	1.506	19.600	2.775	22.333	1.032	22.000	1.414	.618	.455

<Table 4> Th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of pretest and posttest of self-efficacy by sex in 2013

Group	Pretest score				Posttest score				F	P
	Male(n=10)		Female (n=9)		Male (n=10)		Female (n=9)			
	M	SD	M	SD	M	SD	M	SD		
general self-efficacy	55.200	2.098	59.667	3.937	65.300	9.166	80.444	2.007	11.135	.004
Learning self-efficacy	14.000	1.563	15.889	1.691	21.700	2.163	24.333	1.500	6.286	.023
Social self-efficacy	24.100	1.449	23.889	1.616	20.900	4.358	26.667	1.323	16.847	.001
Emotional self-efficacy	17.100	1.101	19.889	1.965	22.700	3.164	29.444	1.014	18.010	.001

정서적 자기효능감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2014년에는 <Table 5>에 제시된 것과 같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하지만 정서적 자기효능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

았다. 즉 학습부적응 아동들을 대상으로 성별에 관한 자기효능감 연구결과, 여아들의 자기효능감이 남아들의 자기효능감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5> Th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of pretest- posttest of self-efficacy by sex in 2014

Group	Pretest score				Posttest score				F	P
	Male (n=13)		Female (n=11)		Male (n=13)		Female (n=11)			
	M	SD	M	SD	M	SD	M	SD		
general self-efficacy	52.692	2.594	60.091	3.534	74.769	4.343	81.636	1.027	10.644	.004
Learning efficacy	12.769	1.964	15.273	1.421	23.692	1.377	25.909	.944	15.159	.001
Social self-efficacy	22.462	1.266	23.727	1.556	26.000	1.472	28.727	1.104	19.904	.000
Emotional self-efficacy	17.462	1.266	21.091	1.578	25.958	1.829	27.000	.894	1.260	.274

2. 차 문화 교육프로그램 적용 후 아동의 연도별 자기효능감 변화

차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사전 사후 2012년도 자기효능감 검사결과는 <Table 6>과 같

고 2013년도 자기효능감 검사결과는 <Table 7>과 같으며 2014년도 자기효능감 검사결과는 <Table 8>과 같다.

<Table 6> The pretest and posttest scores of self-efficacy of children through tea culture and education program in 2012

Group	Pretest score (n=11)		Posttest score (n=11)		t	p
	M	SD	M	SD		
general self-efficacy	51.091	4.592	64.727	1.679	-8.695	.000
Learning self-efficacy	13.182	2.750	19.546	0.688	-6.793	.000
Social self-efficacy	19.273	1.421	23.000	1.342	-6.499	.000
Emotional self-efficacy	18.636	2.336	22.182	1.168	-4.852	.000

<Table 7> The pretest and posttest scores of self efficacy of children through tea culture and education program in 2013

Group	Pretest score (n=19)		Posttest score (n=19)		t	p
	M	SD	M	SD		
general self-efficacy	57.316	3.787	72.474	10.205	-7.617	.000
Learning self-efficacy	14.895	1.853	22.947	2.272	-14.400	.000
Social self-efficacy	24.000	1.491	23.632	4.362	376	.711
Emotional self-efficacy	18.421	2.090	25.895	4.175	-9.521	.000

<Table 8> The pretest and posttest scores of self-efficacy of children through tea culture and education program in 2014

Group	Pretest score (n=24)		Posttest score (n=24)		t	p
	M	SD	M	SD		
general self-efficacy	56.083	4.809	77.917	4.745	-23.831	.000
Learning self-efficacy	13.917	2.125	24.708	1.628	-24.179	.000
Social self-efficacy	23.042	1.517	27.250	1.894	-10.200	.000
Emotional self-efficacy	19.125	2.309	25.958	1.829	-16.108	.000

2012년 자기효능감 사전점수는 51.091±4.592점, 사후점수는 64.727±1.679로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하위변수를 살펴보면,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사전점수는 13.182±2.750점 사후점수는 19.546± 0.688로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에서도 사전점수는 19.273±1.421점 사후점수는 23.000± 1.342로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정서적 자기효능감 사전점수도 18.636±2.336점 사후점수는 22.182± 1.168로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전체 자기효능감과 하위변수인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 정서적 자기효능감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보다는 실시하고 난 후 결과가 높게 나타나 차 문화교육프로그램이 자기효능감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2013년 자기효능감 사전점수도 57.316±3.787점 사후점수는 72.474±10.205점으로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하위변수를 살펴보면,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사전점수는 14.895±1.853점 사후점수는 22.947±2.272점으로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회적 자기효능감 사전점수는 24.000±1.491점 사후점수는 23.632±4.362로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정서적 자기효능감 사전점수는 18.421±2.090점 사후점수는 25.895± 4.175점으로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전체 자기효능감과 하위변수인 학업적 자기효능감, 정서적 자기효능감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보다는 실시하고 난 후 사후 결과가 사전결과보다 높아 차 문화 교육프로그램이 자기효능감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하지만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후에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사회적 자기효능감 향상에 도움을 주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자기효능감 사전점수는 56.083±4.809점 사후점수는 77.917±4.745점으로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하위변수를 살펴보면,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사전점수는 13.917±2.125점 사후점수는 24.708± 1.628로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회적 자기효능감 사전점수는 23.042±1.517점 사후점수는 27.250± 1.894점으로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정서적 자기효능감 사전점수는 19.125±2.309점 사후점수는 25.958± 1.829으로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2012년, 2013년 2014년도 전체 자기효능감과 하위변수인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 정서적 자기효능감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보다는 실시하고 난 후 사후 결과가 사전결과보다 높아 차 문화 교육프로그램이 자기효능감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복지서비스 사업으로 자립 매김하고 있는 OO구청 드림스타트사업 중 인지정서 행동분야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참여자 중 학습부적응 아동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내용은 본 연구자가 ARCS모형에 근거하여 개발된 차 문화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2012년, 2013년, 2014년 3년간 다른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여 이에 대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학습부적응 여아의 자기효능감이 남아의 자기효능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라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힌 연구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높다는 Hyeonjin Seo(2011), Yeonheum Shin(2011), Myeongwha Jeong(2013)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하지만 남아의 자기효능감이 더 높다는 Eunhye Park(2005)의 연구결과와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도 여아의 자기효능감이 남아들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습부적응 아동들에게도 여아의 자기효능감이 남아의 자기효능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신체적 정신적 성장속도가 빨라 더 성숙한 상태에 있어 학교생활이나 또래관계의 공동체 생활에서 더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자세를 가지게 됨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2012년, 2013년, 2014년 자기효능감 점수의 사전-사후 검사를 비교분석하였다.

2013년에는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 중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제외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정서적 자기효능감에서 사전점수보다 사후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2012년과 2014년에도 자기효능감 전체와 하위요인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 정서적 자기효능감이 사전점수보다 사후점수 때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정서는 그들이 속한 민족문화에 의해 영향을 주로 많이 받는데 특히 사회화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아동들에게 있어서 인성이 형성되는 시기에 민족문화의 영향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아동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해결책은 대부분 외국 선행연구들의 접근방법에 의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대의 심리사회적 치료의 흐름은 다양한 정보와 풍부한 문화를 기반으로 점차 다문화적 접근 혹은 민족문화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 사회문제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방법은 각 지역사회 문화의 전통 속에 내재된 적합한 토착 프로그램을 활용한 차 문화 교육프로그램은 아동들의 문제행동 해결에 있어서 효과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Kyeongnam Lee, 2000). 학습부적응 아동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수업들은 주로 인지적 수업을 위주로 하여 편성되어 아

동의 흥미와 참여도를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자가 ARCS모형에 기초하여 개발한 차 문화교육프로그램은 실습이 포함되어 있고 다양한 수업활동이 첨가되어 아동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었다. 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차 문화 활동을 통해 호기심을 유발하여 아동의 정서적 지지와 올바른 행동에 영향을 주고자 했다. 아울러 차 문화교육은 학업성취도가 낮거나 심리적 요인에 있어 문제가 있는 학생들도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어 학습부적응아동들이 접근하는데 있어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안정적인 애착형성이 되지 않고 학습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에게 차 문화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한다면 심리적 안정과 문제행동 등을 개선하는데 있어 효과적일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보면 차를 마실 때 심신을 건강하게 하고 도와 인-의-예가 포함되어 있어 사람들의 정서적인 변화를 고무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Youngwoon Seok, 2000). 비행청소년들에게도 차를 마시는 행동과 생활을 지도하는 것은 정서적 안정과 자아를 각성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했고(Choonyeon Kwon, 2007) 차를 통해 바른 몸가짐과 마음가짐, 언어예절, 질서생활 등의 기본적인 생활습관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했다(Joonghye Lee, 1993). 차 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였더니 부적응 행동의 빈도와 주요문제의 증상들이 감소했다고 했고 차 문화 교육프로그램이 치매노인의 정서적 인지적 신체적 사회적 기능 향상에도 효과적이라고 했다. 또한 유아의 정서적 안정과 청소년과 여성재소자의 인성에도 차 문화 관련 프로그램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했다(Insook Kim, 2007; Myeongja Choi, 2007).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며(Soonae Jeong, 1998), 학업동기, 학업습관,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대인관계 등에서도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했다(Jeongnam Kim, 1999). 본 연구에서도

차 문화교육은 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들의 정서발달과 심리적 안정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매년 증가되고 있는 학습부적응 아동들에게 정서적 지지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수업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자기효능감은 학습부적응 아동들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어 학업성취도 향상과 미래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학습부적응 아동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지지에 도움이 되는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12년, 2013년, 2014년 드림스타트에 의뢰되어진 초등 고학년의 성별, 연도별 사전 사후 T검증을 통해 효과를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습부적응 아동들의 자기효능감 함양을 위한 방안 마련과 수업프로그램의 구성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의 차 문화 교육은 주로 노인들이나 비행청소년,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무기력하고 자존감이 낮은 학습부적응 아동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차 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한다면, 자기효능감 향상에 도움을 주어 행복한 학교생활과 또래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들의 심리치료와 정서행동에 도움을 주고 있는 여러 교육기관들도 차 문화교육프로그램을 접목해 본다면 교육적으로 유용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사전 사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시도했다. 사전 사후점수에서 2012년에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지만 2013년, 2014년에는 여아의 자기효능감이 남아의 자기효능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할 때 본 결과를 반영한다면 차 문화 교육프로그램이 더 효과적일 것

이다.

둘째, 학습부적응 아동들에게 차 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2013년에는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 중 사회적 자기효능감에서는 향상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정서적 자기효능감에서는 사전보다 사후검사에서 향상된 결과를 나타냈다. 2012년과 2014년에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 정서적 자기효능감이 사전 검사 때 보다 사후 검사 때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즉 년도에 따라 다른 학습부적응 아동들을 대상으로 차 문화 교육프로그램을 3년 동안 적용한 결과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점수가 거의 모든 영역에서 향상된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차 문화 교육프로그램이 학습부적응 아동들의 자기효능감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학습부적응 아동들의 자기효능감 향상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됨으로써 학령기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지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교육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서적 지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해 차 문화 교육프로그램을 다른 교육기관이나 일반아동과 청소년들에게도 적용해 본다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아동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 정서적 자기효능감 등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다른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자기효능감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할 수 없다. 아울러 사회적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References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Y: Freeman.
- Bandura, A., Pastorelli, C., Barbaranelli, C., & Caprara, G.V.(1999). Self-efficacy pathway to childhood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2),258~269.
- Borkowski, J.,&Thorpe, P(1994).Self-regulation and Motivation: A life-spanperspective on underachievement, In D.Schunk & B. Zimmerman(Eds.). *Self-regulation of learning and performance*.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yeongwan Seo (1983). Analysis of types of children with poor learning ability and counseling type development. Hanyang Univ. Ph.D.
- Choon Kyung Kim(1998). An Individual Psychological Study on The Causes , Prophylaxis and Playtherapy Applications of The Learning Maladjustment. *Korea child psychology Rehabilitation*, 2(1).
- Choonyeon Kwon(2007). The social welfare approach of tea ceremony program for social adaptation ability improvement of children with emotional behavior disorder. Kyeongan Theological College Graduate School. A dissertation of master degree.
- Daesik Lee, Maeryang Hwang (2011). Understanding and guidance of children with poor learning capacity. Education science publisher.
- Gregorc, Anthony F.(2004). *The Mind Styles Model-Theory, Principles and Practice*, 5, Columbia: Gregorc Associates, INC.
- Gregorc, Anthony F.2001 *Mind Styles FAQs Book*, Columbia: Gregorc Associates, INC.
- Gregorc. Anthony F. *Learning Teaching Style Potent Forces Behind Them Educational Leadership*. 36-4.
- Hae-eon Seong (2006). The relations of parent attachment of primary school students with learning self-efficacy and school life adaptation. Keongnam Univ. A dissertation of master degree.
- Haejoo Choi (2011). Relational structure analysis between self-adjustment ability of school age children and the relevant variables. Daegu Catholic Univ. Graduate school. Ph.D.
- Hwasun Yi(2006). Tea impact meditation on mental health. Keimyung Univ. Ph.D.
- Hyangsook Lee (2011). Effects of tea culture therapy on emotional stability, self-efficacy and aggression of crisis adolescents. Kyeongseong Univ. A dissertation of master degree.
- HyeJeong Jeong(2009). Study on the Effect of tea culture ADHD treatment program improves children's maladaptive behavior.
- Hyeonjin Seo (2011) Influences of self-efficacy, goal orientation and attribution tendency on learning attitude. Kwandong Univ. Ph.D.
- Insook Kim (2003). The emotional function change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through tea culture therapy, 26(1). 275~290.
- Insook Kim (2015). The benefits of tea culture therapy programs for the improvement of self-efficacy of the youth of the youth protection. *A Study of Digital Convergence Complex*, 12(5). 479~490.
- Insook Kim(2007). Application of tea ceremony program to children with emotional behavior disorder. Boosan Univ. A dissertation of master degree.
- Jaechon Go, Youngseong Choe, Youngsun Choe(2006). Poor student learning and development programs Development and Application Model. *Elementary Education*, 13 (2), 25~42.
- Jeongin Shin, Choonkyeong Kim (2012).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 of children with poor learning capacity. *Special education rehabilitation science*, 50(1), 127~152
- Counseling.
- Jeongnam Kim(1999). An influence of self-efficacy on school achievement and school life adaptation, 17(1), 67~96.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 Jinok Park (2012). Effect of tea culture Therapy Program on peer interaction behavior change in children
- Joonghae Lee (1993). Tea and meditation : centered on youth education field.
- Keller, J. M.& Sanghoo Song(1999). *The ARCS Model for Developing Motivational-Adaptive Computer-Assisted Instruction*.
- Keller, J. M.(1987). The systematic process of Motivational design, performance and Instruction 26(9-10), 1~8.

- Keller, J.M.(2010). Motivation design for learning and performance: The ARCS model approach. New York. NY: Springer verlag.
- Kihye Han (2011). A longitudinal study on academic achievement related variables of the Korean youth. Inha Univ. Ph.D.
- Kyeongnam Lee (2000). The application of tea ceremony program in social welfare practice. Boosan Women's Univ. collection of thesis the 21st.
- Manseok Yoon (2010).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with poor learning ability and intelligence profile analysis.
- Mikyeong Yang (2008).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program on the school life adaptation of school maladjusted middle school students and self-promotion. Kangwon Univ. A dissertation of master degree.
- Muris, P. (2001). A brief questionnaire for measuring self-efficacy in youths.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ment, 23, 145~149.
- Myeongja Choe (2007). Studies on the effects of tea culture treatment programs in nursing facilities. Dongguk Univ Master's Thesis
- Myeongja Choi (2007). A study of effects of tea culture therapy program in nursing homes. Dongkook Univ. A dissertation of master degree.
- Myeongwha Jeong (2013). Influences of learning self-efficacy and attribution tendency of middle school students on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Kwandong Univ. Ph.D.
- Schunk, Dale H.(2006). Learning theory from educational perspectives.
- Seongae Lee (1997). Study on Literature Study in Korean tea culture and consciousness structure.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 Seunghwan Oh (2005). Psycho-social adjustment factors of teenagers from low-income families. Korea child welfare, 21.
- Sonsil Lee (2003) Ceremony Education on the character development of the high school girl. Sungkyunkwan University, Master's Thesis
- Soonae Jeong (1998). Relation analysis between self-efficacy, school achievement and school life adjustment, Kangwon Univ. A dissertation of master degree.
-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Dreamstart project introduction.
- Yihwasun (2006). Tea impact meditation on mental health. Keimyung Univ. Ph.D.
- Yongnam Cho (2015). A study of effect of the child welfare policy (centered on dream start project). Ewha Women's Univ. Ph.D.
- Yongwoon Seok (2000). Medical tea food. Dadam publisher.
- Yoonah Song(201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General Self-Efficacy Scale. Ewha Women's Univ. Ph.G.
- Youngho Jeong, Kyeongnam Lee and Insook Kim (2011). Tea culture therapy. Yangseo won.
- Youngran Kim(1997). Analysis of attribution tendency on children with normal learning ability and children with poor learning ability. Keonkook Univ. A dissertation of master degree.
- Youngseon Jeong (1996). Korean tea culture.
- Youngsook Chung(2004). Tea cultivation of EQ training programs for young children. Korea Car Journal 2 (2) 13~24

- 
- Received : 03 May, 2016
  - Revised : 13 June, 2016
  - Accepted : 16 June, 2016